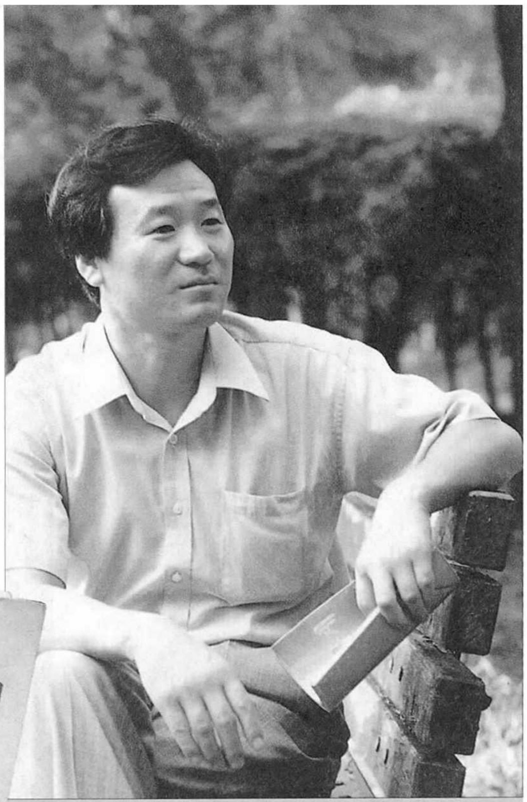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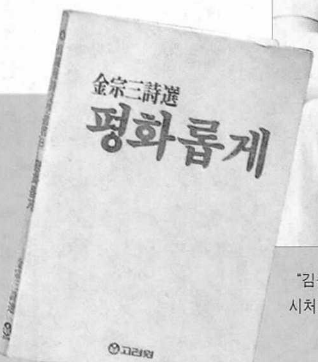
내서가의책한권

# 절망에 빠진 상상력을 치유한 언어의 '상비약'

## 시인 한찬동씨가 뽑은 김종삼의 《평화롭게》






"김종삼 시의 본령은 행간의 폭이 넓고 울림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시처럼 함축적이면서 감동의 진폭이 큰 시를 쓰는 것이 꿈입니다."

밀란 쿤데라에 따르면, 시의 천분은 어떤 놀라운 관념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한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시인 한찬동씨(42, 충남도청 비서실)가 서가에서 뽑은 김종삼 시선 《평화롭게》(고려원)를 읽다보면 쿤데라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씨가 아끼는 김종삼의 대표작 〈민간인〉을 읽어보자. "1947년 봄 / 심야 / 황해도 해주의 바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 용당포 //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이 시는 분단의 비극을 형상화하면서도 간결한 사건묘사로 그칩니다. 시어의 낭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분단시보다 감동적이죠. 김종삼 시의 본령은 이처럼 행간의 폭이 넓고 울림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한씨에게 이 책은 80년대 중반 습작시절의 '교과서'였다. 직설적이고 생경한 시들이 난무하던 때, 김종삼의 시는 그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강경읍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늘 이 책을 끼고 다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시가 막히면 먼저 이 시집에 손이 갔다. 절망에 빠진 그의 상상력을 치료해주는 언어의 '상비약'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역효과'도 있었다.

"이 시집을 읽다가 자괴감에 빠진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느낌 때문이었죠. 그의 시처럼 함축적이면서 감동의 진폭이 큰 시를 쓰는 것이 꿈입니다."

그는 최근 이 시집을 다시 꺼내 읽었다. 청년시절 그를 열에 들뜨게 했던 감동이 여전했다. 좋은 시는 감동의 '한계효용 법칙'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의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열어주는 듯했다.

1990년 《한국시》로 등단한 한씨는 아직도 시집을 내지 못했다. 공무원 생활이 창작의 여유를 앗아갔고, 추려서 세상에 내보낼 만한 시가 없다는 부끄러움이 출간의 욕심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언어에 조바심 내는 시인이다. 김종삼 시집에 습작 시절 적어 놓은 시가 이를 보여준다.

"바람은 불어서 / 바람이 아니다 / 바람은 스며서 바람이다 / 가슴에" — 대전 · 박천홍 기자

열린
마당

좋은 책을 만들어
팔아 드립니다.

실비 제작
성실한 판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 · 출판미술가 · 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좋은 책'을 기획 · 편집하고 있습니다.

● 단행본
각분야의 실용 · 교양 · 전문서/체험수기/자서전/회고록/일기집/화집/사진집/참고서/시집/소설집/에세이집 등의 단행본 출판물

● 그밖의 출판물
각기업의 사보/사외보/협회보/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기업/社史/團體史 기타 기념출판물

원고작성 · 번역 · 편집 · 디자인 · 제작 · 판매代行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 · 인쇄 · 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1213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代)